

# 言語정보의 效率개선과 漢字혼용의 필요성

안 수 길

오디오機器의 성능이 나쁘면 증폭하는 신호가 일그러져 소리가 더러워진다. 전자공학에서 處理신호가 原신호와 달라지는 바 일그러짐(distortion)이란 중요한 문제이다. 이 일그러짐을 표현하는 데 일본말에는 ‘歪曲’이란 낱말과, ‘歪’라는 낱말의 두 가지가 있는 반면 우리는 ‘왜곡’이란 말 하나밖에 없다.

한 言語, 같은 意域에서 두 가지의 서로 구별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으면 意域을 세분해서 뜻하는 바를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과연 日語에서는 ‘歪’는 완전히 명사의 경우만 있고 무엇인가 ‘結果된 量’을 말하는 것 같은 반면 ‘歪曲’은 ‘歪曲하다 = 비뚤게 함. 굽혀 바르지 않게 함’라는 他動詞에 아직 관련이 있어서 intentional한 느낌이 있다.

‘왜곡’ 대신 ‘歪’를 쓰면 한 글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言衆 전체의 使用量으로 보았을 때, 특히 대량정보시대에 매우 중요하지만 ‘曲’자와 결합을 하는 데에서 오는 잘못된 어감도 避할 수 있어서 좋다. ‘歪’의 경우와 같이 한 글자가 한 단어가 될 때에는 다른 名詞와 결합해서 짧은 新造語를 만들 수 있어서 유리하다. ‘非直線歪’, ‘高調波歪’, ‘非均質歪’ 등 여러 新單語를 만들어 가면서 non-intentional한 명사로서의 ‘歪’라는 ‘接尾글자’의 활약무대는 크다.

한편 ‘翻譯歪’라는 中性的인 단어 대신 ‘翻譯歪曲’라는 단어를 쓴다면 후자는 intentional한 느낌을 피할 수가 없다. 단 여기서 ‘번역왜’라고 함은 필자의 自作單語로서 한 언어로 된 문장을 제2의 언어로 번역하고, 다시 그 翻譯된 문장을 반대로 처음 언어로 번역해 오면 원래는 그 결과가 원문과 같아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乖離가 생길 수 있는데 ‘翻譯歪’란 그 非意圖의 乖離현상을 뜻한다. 이는 번역과정에서 공정성을 다 해도 일어날 수 있는 바 言語間의 ‘결의 差’에서 오는 현상으로 non-intentional한 것이다.

이 原本과 往復翻譯된 것과의 괴리를 電子工學에서 ‘신호를 취급하면서 일어나는 歪’와 같은 것으로 볼 때 우리는 ‘翻譯歪’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 ‘翻譯歪曲’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피할 길 없이 intentional인 느낌이 混入되기 시작할 것이다.

漢字의 有利점은 이미 많이 거론되어 확립되어 있지만, 本稿에서는 상기 例들과 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새로 시작되는 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검토, 非理想的인 상황 等에서의 reading에서의 漢字혼용의 強點, 그리고 정보이론에서 指摘되는 바와 같이 symbol(글자와 기호)의 수가 많은 言語가

의사표시에 유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바 보완논문이 되겠다.

## 1. 길이密度에 관한 고려

漢字로 표시하면 ‘쫘’라는 단어도 (‘曲’이란 추가된 글자로 해서 뜻에 영향을 받아 변질될 걱정 없이) 좁은 뜻으로 남고 길이密度(單位長意味密度 = 길이에 대한 뜻의 밀도)도 커진다. 漢字는 한 글자만 갖고도 뜻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의미의 추리를 위해서는 짧을 때에 더 比較優位에 서게 된다. 惡照明, 또는 紙面汚染 等 讀出條件(reading conditions)이 나쁘거나, 차창밖에 지나가는 것을 보는 등, 상대적 인 이동상황이어서 부분적으로만 읽는 데 성공했다거나 하는 바 非이상적 조건하에서의 推理讀出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글이나, 한자 또는 수자 등 문자기호의 優劣의 비교는 여러 조건하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읽어 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논법은 충분치가 않다.

그 밖에 弱視이거나, 年老한 사람들의 경우도 고려한다면 그림글자인 漢字의 強點은 더 크게 평가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의 학습에 투자를 할 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不利한 讀出條件이란 흔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考慮에 넣어야 한다. 實際적으로 글자들을 항상 이상조건하에서만 읽게 되는 것은 아닌 데 그러한 경우에서도 읽어낼 수 있으면 이상적이다.

‘쫘’의 경우와 같은 高效率단어들의 또 하나의 事例를 들자면 ‘艦’라는 글자가 있다. 이 글자는 ‘차릴의’라고 부르는 데 이 하나의 글자가 ‘배 떠날 준비를 다 하고 언덕에 갖다 댄’이라는 복합적인 일을 나타낸다. 이 경우 글자 하나를 갖고 空白素 빼고도 15자를 대신하고 空白素까지 세면 22字가 된다.

漢字에는 이 경우들과 같이 짧으면서도 뜻이 큰 경우가 많다. 단어길이는 짧으면서 의미가 큰 高意味밀도單語는 여러 면에서 중요하지만 결국 ‘소량을 읽고도 같은 정보량(그리고 作品의 경우는 같은 感動)을 줄 수 있’어서 강력한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불가결한 것이다.

但 위 구절에서 사용한 ‘空白素’란 띄어쓰기를 나타내는 빈칸으로 예를 들어 ‘예술전당’ 대신 ‘예술의 전당’을 쓸 때 후자에서 관찰되는 ‘빈칸’이다. 이것이 사이에 끼면 이미 한 단어가 아니어서 구성요소인 複數의 단어들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하게 된다. 助詞 等を 통해서 그 단어간 관계를 알아야 하니 智의 노력이 더 들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공백소가 없는 한 單語’의 경우가 공백소를 갖는, 따라서 句(phrase)이상인 바 복잡한 ‘단어代替物(폴리)’의 경우보다 머리를 덜 써도 된다는 것이다. 결국 讀出이 쉬워지고, 지엽적인 구조규명에 머리를 덜 쓰기 때문에 그러한 高밀도단어, 즉 術語들을 활용하는 글은 (더 크고,) 더 어려운 내용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이것이 ‘文語’이고 ‘專門家들의 文章’인 것이다.

## 2. 시대發達에 따른 新語발생(制定)

Internet의 일본신문 新製品소개란에서 디지털카메라 소개에 섞여서 ‘은염카메라’라는 신어를 만나게 됐다. 그 글에서 ‘銀’이란 漢字와 ‘鹽’이란 漢字를 보았을 때 그것이 鹽化銀塗布필름을 쓰는 在來式카메라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추리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일본말을 모르는 사람들도 한자를 충분히 알면 速讀을 爲해서는 일본신문을 읽는 것이 빠르다. 두세 줄을 한꺼번에 훑는 바 ‘斜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나뉜 배품’이란 뜻을 갖고 있는 ‘配備’라는 국어 단어도 뜻을 모르고 있다가 처음 만났을 때 한자로 된 것을 읽었기에(讀書 중단하고 사전 찾는 일 없이) 뜻을 쉽게 짐작하게 되어 다행이었다. 근래 신어를 만나는 일도 많아졌는데 高速정보流通시대에 한 글자마다의 뜻이 그 자리에서 明確하게 드러나면 新語의 경우도 쉽게 추리할 수 있다. 이것은 漢字의 뚜렷한 장점이다.

## 3. 일본도 漢字문명에 본격적으로 기여

우리 東夷族은 漢字의 形成에도 관련했고 우리의 先祖들은 漢文學에도 많은 寄與를 해서 粟谷의 경우 등은 ‘한자로 글을 쓴다’하는 정도가 아니고 담는 그릇인 漢文學의 위상을 더불어 提高해 준 정도의 學的 활동을 했던 것이다. 그런 데 우리는 解放後 일본식 단어로부터의 離脫을 위한 노력 이외의 學的인 노력 등은 全無하다 싶었고, 후일에 가서는 오히려 新語들을 일본사람들이 制定하는 것을 기다려서 빌려쓰는 비굴함을 보였다.

반대로 일본사람들은 漢字로 適時에 신어를 만들어서 도리어 중국사람들이 이들을 애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들 신어들이 아시아권의 문화 및 학술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노력은 일본을 ‘한자문명의 宗主國’ 중의 하나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사전을 만들어 지금까지 나타난 일이 있는 모든 漢字를 수록하는 일을 중국과 경쟁(各各 10여권을 넘는 바, 일본의 大漢화사전과 중국의 大中華사전)을 벌려 한자문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4. 학술에서의 高分解能 언어의 필요성

필자는 금번 음향학회에서 용어사전을 만드는 데 參與하게 돼서 여러 사람이 작성한 원고를 감수하게 됐는데 딱한 사례를 많이 보게 된 것 같다. 필요한데도 漢字를 기피한 경우가 많아서 돌아앉은 그 자리에서 本人이 다시 읽어도 알기가 어려울 것 같은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이 단어들은 專門的인 用語가 돼서 일상생활에는 별로 안 쓰는 낱말들이고 대부분이 동일, 또는 類似 발음의 다른 뜻의 單語(동음이의어)들이 있어서 漢字로 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이다. 원래 이와 같이 混同이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漢字나 한글 어느 쪽 하나를 括弧안에 넣어주게 되어 있는데 共同집필자 중 몇 사람은 철저히 이를 거부한 것이다.

그러한 행동의 底邊에는 본인이 漢字를 모르는 것도 있지만 지금 시정에 팽배한 漢字기피의 풍조에 우선 따른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독자가 알 수 있게 정성을 드린다’라는 信念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 데에서도 오는 것 같았다. 적극적으로 學界에 기여한다는 신념이 없고 일이야 어찌되건 ‘남과 달리 한다는 것을 겁내’는 弱者의 마음가짐을 거기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用語辭典을 ‘들쳐봐도 도움이 안 되는’ 사전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또는 ‘疑問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을 만들어 주는’ 辭典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漢字 없이는 전혀 읽어낼 수가 없는 경우이거나, 읽다가 되돌아가서 다시 봐야 할 정도 사용자를 헤매게 하는데 처음부터 漢字를 박았더라면 그렇게까지 헤매게 되지는 않았을 그러한 경우에는 漢字를 넣기로 했다.

## 5. 非專門家들도 짐작할 수는 있는 술어

그러한 어려움은 옆에 관련된 분야거나 學問의 두 개 이상분야의 分界線 가까운 데에서 잘 일어났다. 관련이 있는 옆 분야나, 소위 interdisciplinary한(學界的) 分野이다. 예를 들어 筆者와 같이 바탕이 전자공학인 사람에게 機械공학 관계 용어, micro-machinery 관계 용어, 또는 醫學관계 용어, 醫用電子관련 용어 같은 경우이다. 그러한 단어들은 漢字의 도움 없이는 생각의 出發點을 잡아주기조차 힘이 드는 것이다. 흔히 한글전용론자들이 말하는 바 ‘文脈에서 類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러한 색다른 단어가 漢字로 소개됐을 때에는 理解과정에서 意域上 상당히 좁혀서 떠나는 것이니까 궁리를 할 여지가 있고, 또 그러한 궁리는 대강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다. 기타 讀出條件이 나쁘거나, 가려지거나 해서 단어의 글자가 一部만 보이는 경우 등에 있어서도 漢字의 경우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이까지 좁혀서 출발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쏠혀 짐작이 안 갈 때가 있다. 한 系統의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즉 일상 그것으로 밥을 먹고 있는 業者끼리도 글로만 적으면 錄音記錄보다 不利해서 聲調와 악센트 등도 탈락돼 버려 정확한 이해를 하는 데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에 추가해서 한글로만 적으면 더 의사소통이 어렵고, 더군다나 非專門家의 경우, 또는 취미나 호기심으로 들여다 볼 때에도 한글전용이면 쏠혀 알 수가 없게 된다. 남이 모르는 것이 유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 專門의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하고, 監視도 해야 하는 시

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짐작한다는 것이 꼭 필요하게 된다.

## 6. 合成語를 만들 때 單字語 및 寡字語의 유리점

‘이수’가 컷불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지만 ‘이수’와 ‘컷불’이란 두 가지 選擇을 갖고 있는 것을 自進 拋棄해서 ‘컷불’이란 단어 하나만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 여러 術語를 만들 때, quasi, peri, sine, para, anti 등을 뜻하는 ‘準’이나, ‘環’이나, ‘非’나, ‘超’나, ‘反’을 붙여 새 단어를 만든다면 한글單語보다 漢字의 경우가 나올 것이다.

예를 들어 ‘Quasimoney’는 ‘준돈’보다는 ‘準화폐’가 낫고 ‘periderm’은 ‘둘레피부’보다는 ‘周皮’가 낫다는 것이다. 글자數의 增加까지 甘受하면서 漢字를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날마다 글을 통해서 어려운 학문을 傳受하고 배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너무 어린 생각인 것 같다. 같은 내용을 더 길게 써 文章부피가 커야 겨우 正確한 意思 전달이 되는 바 ‘언어의 低效率’은 생각키보다 민족의 文化暢達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유양돌기부’나 ‘고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이 ‘乳樣’이나 ‘鼓’와 關係가 있다는 힌트만 있어도 해결의 길은 있다. 이미 細分됐다고 생각되는 단어들 사이에 또 새로운 概念이 들어오면 이를 區分해 주기 위해서는 단어부족으로 해서 손짓 발짓이라도 動員해서 그 새 개념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 漢字排斥의 마음 때문에 일어난 大量術語消滅이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모를 것이다.

우리가 漢字排斥으로 학문을 犧牲할 정도 어리석을 수는 없다. ‘와전도’나 ‘고실갑각’, ‘개구단보정’, ‘제진’도 漢字가 필요한 경우이다. ‘삼차신경’이라 써서 誤解 안 할 정도 익숙한 사람들에게도 본인은 좋지만 상대편 讀者가 ‘삼차’를 3rd로 생각한다는 것은 不便하다. 이 때 ‘삼차’는 ‘三叉’이기 때문이다.

## 7. 助詞로 혼동하기 쉬워서 일어나는 混亂

語尾에 助詞가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漢字단어를 한글로 썼을 때도 문제이다. ‘…로’는 ‘with’ 또는 ‘to’ 등을 나타내는 助詞이지만 ‘전파로’는 ‘전파를 써서’가 아니고 ‘전파되어가는 길’이다. 이 두 가지 ‘전파’는 漢字로 썼을 때 쉽게 구별이 된다.

또 하나의 例로서 ‘지구의’ 같은 경우도 있다. 이 경우도 ‘의’가 助詞인지 아닌지, 卽 ‘地球儀’인지 ‘地球의’인지 헷매게 되는데 이러한 追加된 智力낭비는 허용될 수가 없다. 漢字기피로 한 瞬間의 판단躊躇가 追加돼도 이 고속정보, 고

속결정의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利로울 것이 없다. 卽 한글전용은 ‘애국’이 아니고 한자를 안 배우겠다는 ‘개으름’인 것이다.

## 8. 있어야 할 단어의不在가 주는 폐단

한 나라말 語彙에 있어야 할 單語가 없고 그 ‘풀이’만이 있다는 것은 文化的 貧困을 나타낸다. ‘나가는 곳’은 ‘出口’란 단어의 ‘풀이’이지 그 單語自體가 될 수가 없고, ‘돈 지불하는 곳’은 ‘계산대’란 단어의 ‘풀이’인 것으로 단어自體를 없애고 들어 앉힐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 밖에도 辭典의 各單語項의 뒷자리에 있어야 할 풀이를 앞자리에 있어야 할 ‘單語’自體로 쓰면서 單語不在의 불편을 못 느끼는 편한 사람들이 漢字排擊의 목소리는 높다.

있어야 할 ‘단어’가 없는 경우란 어느 언어에서나 교대교대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주장으로 기존의 것, 있던 것을 소멸시켰다면 그건 뚜렷한 퇴보이다. 있어야 할 單語가 없을 때 그만큼 그 言語로 쓴 글의 전체량이 평균적으로 길어질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는 landmark(경계표, 陸標, 큰 빌딩 등 筓內가 되는 눈에 띄는 구조물)라는 말이 있는 데 우리의 말로는 定着되지를 안았다. 시내에서 예전에는 화신상회 건물, 또는 남대문 등이 ‘陸標’ 노릇을 했었는데 그 후 홍익대학교 근처 西서울 등이 뺏어 갈 무렵에는 서교호텔이 이 ‘陸標’노릇을 한동안 했다. 그 건물만이 우뚝 솟아있어서 멀리부터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이 ‘landmark’인 것이다. 지금의 造語경향으로서는 ‘筓內가 되는 눈에 띄는 구조물’이 되겠지만 그것은 단어가 아니고 그 풀이인 것이다.

이 landmark에 해당되는 단어의 不在(또는 있는 데도 우리가 활용을 못한 사실)는 다른(있어야 할) 단어의 부재와 함께 우리의 말을 짧고 효율적인 것으로 되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대화를 하는 데도 더 시간이 걸리게 했을 것이며, 국제 입찰 흥정을 위한 긴급전화통화 등 시간 다투는 입장에서도 우리를 절대 유리하게 만들지는 안았을 것이다. 단어들의 부재란, 또는 고의적인 기피로 일어나는 어휘의 소멸이란 不覺中에 한 나라, 한 사회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 9. 單語레벨에서의 복잡과 智力소모는 큰 내용을 다루는 데 불리

漢字術語의 소멸로 해서 있어야 할 ‘단어’가 없고 그 풀이를 갖고 대신 쓴다는 것은 思考의 浪費로 이어진다. 한 單語로 묶여 있어야 할 단어를 풀어서 큰 부피로 해서 끌고 다닌다는 것은 複雜한 概念을 術語로 해서 간단하게 표현, 또는 기록할 줄 아는 경우에 比해 불필요하게 길고, 결국은 큰 思考活動을 할 수 없게 한다. 複雜한 概念을 縮小해서 表示하는 努力으로 해서 新單語를 계속

만들어 활발한 思索이나, 능률 좋은 討論에 사용하는 것이 知性人이 할 일인 것이다.

上記 辭典에서 ‘非觀血的으로’ 라는 新術語를 발견했을 때 기뻐다. ‘일일히 피를 뽑아 測定하지 않고도 되는’이란 뜻인 모양이다. ‘일일히 피를 뽑아 測定하지 않고도 되는’이라는 21자로 된 ‘설명문’ 代身에 ‘非觀血的으로’라는 6자로 된다는 것은 종이의 절약만이 아니고 讀出速度, 따라서 思考의 速度를 改善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비관혈적으로’라고 한글만으로 쓴다면 뜻을 알 수도 없으려니와 6자로 될 수 있는 術語를 두고도 대신 21자로 된 그 ‘풀이’를 써야 한다는 것은 文化的貧困이다.

우리는 지금 豊饒가 필요하되 精神的, 그리고 文化的豊饒가 더 크게 必要하다. 지금은(그 간 다소 萎縮한) 우리의 語文文化를 다시 살려야 할 때인 것이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漢字를 배웠는데도 大多數가 이를 喪失하고 있다. 現代의 發達은 무슨 공부인들 해 놓고 나서 잃어도 될 정도의 時間낭비를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漢字는 없어도 된다’는 말은 전면적으로, 그리고 전혀 다른 각도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영어 yes! 漢字 no!’라는 단순한 생각의 害毒은 再照明되어야 한다. 時代의 발달과, 좁아진 地球村, 그리고 치열한 국제경쟁은 전문가들에게 남김없이 ‘모든 記號’를 알고 씀으로 해서 강력한 표현력, 높은 情報 entropy를 갖는 것을 强요하고 있는 것이다.

## 10. 항상 있는 단어창제의 필요성

어떤 관찰력 있는 사람이 추석 날 아침에 자기 동네를 내려다보면서 손님의 왕래 여부로 해서 어느 집이 宗家집이고, 어느 집이 큰집이 아닌 지를 거의 짐작했다. 큰집에는 작은 집 식구들이 차례를 위해서 모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인도 라자스탄의 Amber城에서 코끼리의 등에 실린(본격적인 집이라고 볼 수는 없는) 집단(straw bundle)이 코끼리가 출근하면서(Amber城에서는 쌀값으로 코끼리를 태워주는 회사조직이 되어 있는데 Amber 邑內에는 땅이 좁고 여러 가지로 감당을 못 하니까 주변 농촌에서 아침 저녁으로 코끼리가 출퇴근을 한다) 가져오는 자기의 점심이라는 것을 추리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을 비우고 억지 없이 관찰하면 자연히 보이게 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을 “observology”라고 부르려다가 ‘測定器에 관한 학문’의 냄새가 나니까 “phenomenology”라고, 즉 ‘現象學’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철학자가 아닌 그들은 나중에 Husserl이 “phenomenology”라는 철학의 一分野를 시작했음을 알고(틀린 것은 아니어서 그대로 둘 수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observology’로 부르기로 하고 그들의 토론용으로 썼다.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事象이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것만을 보는 것”이라는 “phenomenology”의 本來의 내용과 다를 것은 사실상 없었다. 그러나 자기네들의 토론용으로 자유

롭게 쓰고 싶어서 暫定的인 용어制定(定義 후 使用)을 하고 서로 이해가 되니까 자주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잘된 新造語는 편리할 수 있고 高效率의 사소통의 수단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다. 필요에 따른 순간순간의 造語란 학적 활동과 기타 토론에서 불가피하다.

이와 같이 공식, 비공식적인, 또는 인정, 비인정의 학적 활동을 위해서도 新術語를 만들 필요성이란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지적활동용 造語 등을 위해 漢字는 편리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자는 위에서 “지적노력”이란 말을 쓰면서 그 표기에 ‘智的’이란 한자표기를 쓰고 ‘知的’을 피했는데 필자의 희망으로는 전자는 ‘intellectual (effort 또는 power)’, 그리고 후자는 ‘wisdom (as assets)’로 구분이 되어, 그 중에서 前者를 지칭하고 싶었던 것, 즉 intellectual effort/power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참고로 한국말의 ‘知慧’와 일본말의 ‘智慧’와는 뉴앙스에 차이가 있어서 전자는 wisdom이란 느낌이 크고 후자에는 ‘페’라는 뜻이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지성이 활동하고 있는 限單語創制의 필요성은 항상 있게 마련인데 漢字이건, (필요한) 어떠한 기호이건 가리고 避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못하면 智的 활동무대에 불편과 제한이 걸리기 때문이다.

## 11. 일반민의 역할

專門家들만 정확한, 그리고 수준 높은 언어를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漢字로 된 우리의 精神文化遺産을 지키기 위해서 漢字전문가 소수만 길러놓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다.

그러나 옷의 유행 하나도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가면 거기에서 더 나은 것이 생겨나는 것이고, 사회전체가 용어선택에 까다로우야 弱者들이 法律字句대로 보호되는 것이다. 契約용어와 글귀에 무관심해서 후일에 우는 계층의 존재는 물론 본인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전체의 無知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는 전체국민이 不正確한 언어를 쓰는 곳에서 논리와 과학이 발달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느 분야건 모든 발달에는 論理的 思考方式과 수준 높은 言語驅使를 통해서 일반사람들의 寄與가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모래의 피라미드와 같이 넓은 저변이 높게 받쳐줘야 頂上이 높게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이건 ‘愚民主義’는 전체의 수준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이의 허용은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일반민중은 모두가 무식하지만 나는 예외이다’하는 주장은 일종의 무식이다. 知的 노력이란 항상 누구에게나 힘이 드는 것으로서 옆 사람들의 ‘지식 있음’을 어슴프레하게나마 느끼지 않고 그러한 노력이 계속되는 경우란 길게 보았을 때 결국은 있을 수가 없다. 한 사회의 知的수준이란 모두가 여러 형태로 서로가



寄與하는 것이고 한 나라 언어의 퇴화는 결국은 그 나라의 문화 및 국력의 쇠퇴를 가져오게 된다.

文化後進國들의 ‘극히 일부 계층만의 文化와 豊饒’라는 것은 文化된 나라의 일부 계층의 貧困보다 나을 것이 없다. 文化와 풍요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용어나 서비스의 評價能力 等, 細部에 關한 社會全體의 文化의 향상이 필요하고 돈만이 全部는 아닌 것이다. 精神面으로도 풍요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스스로 우려난 마음의 餘裕와, 言語의 正確性向上과, 表現의 spontaneity(자연발생성)와 스며나오는 자유의 편함이 있어야 한다.

## 12. 情報理論에서 본 自明한 原理

筆者의 전공은 情報理論인데 필자에게는 이러한 모든 論爭이 번거롭기만 하다. 왜냐하면 情報理論에서는 글자 等 意思表示에 쓰이는 ‘記號’는 많을수록 좋고 한 글자, 한 記號라도 없으면 그만큼 엔트로피- (情報의 表示, 또는 傳達의 能力)가 줄어든다’라는 自明한 公理가 있기 때문이다.

全世界적으로 學問 等 큰 思想을 爲해서는 라틴말, 희랍말까지 동원해서 全幅의인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더 많은 記號동원을 통해서 entropy, 卽 表現能力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결코 虛榮스런 學識자랑을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큰 知識은 많은 記號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필요성에 밀려 전세계의 학자들이 옛 文字나, 單語들을 다시 쓰게 된 것이다.

## 13. 頭腦에의 大量高速정보入出力을 위해서는 多記號체계가 필요

日本에서는 히라가나, 가타가나, 漢字, 그리고 영어도 混用해서 읽기나, 펴내기가 편리하고 強力하기 때문에 국민의 讀書量이 크고, 單語가 많아 表現이 편리하니까 글쓰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善循環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그림要素인 漢字가 많이 섞인 글은 그 중 漢字만 뛰어다니면서 읽는 소위 ‘斜讀’을 통해서(漢字學習에 投資를 한) 全世界사람들에게 速讀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反對로 우리의 중고교육은 폭이 넓지 못하고 대학입시를 위해서 좁은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또 이미 우리 韓國人생활에 깊이 박혀 있는 漢字배척경향이 글자라는 記號들의 엔트로피를 減少시키고 있고, 그림要素를 줄인 꼴이 되어 感覺독서의 쾌감을 반감하고 있다. 出版物의 시장이 크기 위해서는 漢字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出版기업인들은 알아야 한다. 記號數가, 즉 알파벳의 글자數가 적으면 공부나 쉬운 것 같지만 오히려 독서의 쾌감과 독서인구는 줄어든다는 사실을 출판사들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情報의 大量疏通時代의 도래에 따라 학자들은 오히려 記號로서 알파벳 및 희

랍文字 等を 더 追加해야 할 정도 表現力의 不足을 懇切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對象이 많고 複雜한 이 시대의 文化享有를 위해서, 또는 學問의 독자적인 발달을 爲해서는 記號(한글과 漢字)의 數를 줄일 수는 없다. 이것은 簡單하면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眞理로서 더 긴 論爭은 필요가 없다.

## 14. 結 論

結局 글을 씀에 있어서도 조금 더 뜻이 正確하게 傳達되라고 갖은 精誠을 다 하는 사람들의 글도(읽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쓸 때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精誠을 다해서(한글로 key-in을 하고, 다시 漢字로 바꾼다는 2중의 노력을 하고, 그리고 때때 漢字사전을 찾아가면서) 글을 쓰는 것은 混用主義者의 보람이겠지만 결국은 恒眞論法(出發假定을 세운 다음, 이에 의해서 論證을 해서 出發假定을 증명하려는 looping)의 하나로서 증명된 것이 없고 하나의 信仰 비슷한 것이 되겠지만 이것이 個個人的 차이인 것이다. 全力을 다해 정성으로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觀과, 남들이 하는 대로 적당히 사는 사람의 觀에는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있는데 역시 우리에게는 情報理論에 근거한 強力한 言語의 보존과 地球村時代에의 진입에 따라 多記號文化의 豊饒한 꽃핍이 필요한 것으로 한글전문자들의 單純한 主張으로부터는 이제 解放되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 참 고 문 헌

- 김중규, 안수길 (1982) '한글 母音間의 근사도에 관한 연구,' 대한전자공학회지 19.1, 대한전자공학회.
- 손호인, 신동진, 안수길 (1981) 'LP방법에 의한 韓國語모음의 분석과 합성,' 대한전자공학회지 18.1, 대한전자공학회.
- 안수길 (1982) '언어의 과학 - 의사소통의 기능과 이의 보완 -, 語文研究 10.3, pp. 425~43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_\_\_\_\_ (1993) 'Speech and Writing in the Information Society,' 語文研究 21.1-2, pp. 8~1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_\_\_\_\_ (1996) '국어의 기능강화와 시대수용,' 語文研究 pp. 535~55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一潮閣.
- 이현복교수회갑기념논문집 (1996) 음성학과 언어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1996) '單語意味形成의 有機體的 構造論에 대하여,' 어문연구 24.4, pp. 73~9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1), 한글과 漢字 - 국자론의 바른 길 -, 一潮閣.

ANN, Sougil (1984) 'Entropy of the Languages and Information Density,' *Language Research* 20.1: 61~68, Language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_\_\_\_\_ (1992) 'Information Theory As We All Know,' EOMUNYEON-KU 20.4, pp. 436~443,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_\_\_\_\_ (1996) 'Studies of Letters in the Information Era,' EOMUNYEONKU 16.2: pp. 272~283,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_\_\_\_\_ (1996) 'The Necessity of Language Engineering,' EOMUNYEONKU 24.4: pp. 69~72, Korea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 ABSTRACT

# Efficiency Improvement (Meaning Density) of Korean Language and Necessity of the Traditional CI/Hangul Hybrid Writing Usage

Sougil ANN

A few remarks are made showing the necessity of the Hybrid Writing of Hangul and Chinese Idiogrammes (HWHCI). This paper complements previous research papers by indicating the comparative advantages of the HWHCI in many non-ideal reading conditions including sub-word level lacunae-ridden reading; Reading through a window of a vehicle in motion or ink-stained pages could be the example.

The recent tendency of Hangul-Only Writing has brought the mass destruction of many technical terms of Chinese Idiogramme (CI) Origine, modifying the curve of word occurrence frequency distribution (Zipf's law), and gave a serious damage to the effective communication in Korean language.

The conservation of effective technical terms is emphasized while the lack of words and usage of sentences explaining them in their stead are

condemned.

The idiosyncratic advantages in coining new words as well as abbreviating long word and/or multi words are highlighted, which contribute to the language efficiency; They also allow the language to penetrate deeper thinking/insight, and cover a broader discussion field as well as easier referencing, permitting a bigger freedom in thoughts.

Communication theory is referred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having more symbols including the CIs, and larger vocabulary including CI origin words in order to render a language more powerful (higher entropy).

151-742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E-mail: [anns@plaza.snu.ac.kr](mailto:anns@plaza.snu.ac.kr)